

EMMANUEL

임마누엘 [언약호]



말씀
위에서
서
라
굳게

특집

2020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 함께 읽으니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통독 리더가 추천하는 '영어성경 읽기'
자녀들을 응원해주세요!

나바호 선교를 다녀와서 -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 SB673 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의 현장에서

목장 소개 - 비전 청년부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 아이가 울때 나도 같이 울고 싶었다

임마누엘 인터뷰 - 티파니 림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표지설명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무지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설 때입니다.

표를 마르고
꽃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이사야 40:8



Contents

목차

03 언약호를 열며

말씀의 창

담임목사 칼럼 - 언약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나를 세우는 말씀 - 힘든 시간을 지나고 보니...!

나를 살리는 찬양 - 그럼에도 여전히

12 행진 스타일

민음의 선진들

선교 간증

땅 끝에서 온 편지

18 빛과 소금

시대를 분별하라 - SB 673 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의 현장에서

특집 2020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는 글

성경 통독 리더 설문조사

성경 통독 Q&A

성경 통독을 시작하며

임마누엘 아이들의 성경 통독

어린이들의 성경 통독을 위한 팁

목차

36 실만한 물가

크리스찬 명언
시가 있는 풍경
도서실 신간 서적
임마누엘 레시피
임마누엘 카툰
임마누엘 사행시

46 임마누엘 사람들

인터뷰 - 티파니 림 전도사
사진으로 보는 임마누엘
Youth 겨울 수련회를 다녀와서
세례 간증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목장 소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행복한 사람들

언약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결혼은 출생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봐도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결혼되게 하는, 결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부 화장도 중요하고, 드레스도 중요하고, 예식장 분위기도, 어떤 손님을 몇 명 초청할지도, 신혼살림을 어떤 집에서 시작할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결혼을 결혼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족해도 또는 심지어 없어도 결혼이 가능하지만, 서약이 없으면 결혼은 결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결혼은 곧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결혼에 있어서 서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 결혼을 하면서도, 이혼을 많이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결혼식에서 우리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남편, 내 아내를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에는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오히려 가장 중요한 '서약'은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혼의 핵심이 '약속'인 것처럼, 우리 구원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인류가 범죄하였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당시 언약은 소나 양의 피로 맺었는데, 언약에는 세 가지 약속, 곧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있습니다(창15:4-18, 17:1-8).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창12:3), 그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셔서(마1:1)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눅22:20).

결혼이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듯이, 복음은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언약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에 기초하여 그의 아들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들되었습니다(갈3:29).

그러나 결혼할 때 자신들이 한 서약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의 구원이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평안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삶은 없습니다. 이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시다면,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누려도 또 한 없이 넘치는 이 복된 삶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글 | 손원배 목사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29:11-13).

예레미아의 이 구절은 제 둘째 아이가 아플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보니.....!

5년전 둘째가 5살이던 해에 아이는 소아류머티즘관절염(JIA)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10만명중 15명이 걸린다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아이는 매일 열이 났고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특별한 치료약이 없었기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습니다. 아이는 약의 부작용으로 매일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마음이 아파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머리로는 '기도를 해야지' 생각하면서도 막상 기도는 안되고 눈물만 나던 시간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당시 성경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둘째 아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아이를 바라보며 어둠에 있던 저에게 밝은 빛이 비추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동안 갖고 있던 두려운 마음들, '혹시 아이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 진다면?', '병이 더 진행되고 관절에 손상이 와 장애가 온다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면 아이가 자라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낙심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가이때 했던 고백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셨어 나를 만나주시려고.....” 둘째는 이제 9살 입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믿음 없던 저희 부부는 아이의 회복되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아이들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습니다. 성경읽기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다 보니 큰 아이는 5독을 마치고 올해는 2독 (영어, 한국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3독(3번을 듣고), 1독 했습니다. 횡수로 5년째 입니다. 저녁을 꼭 먹어야 하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 성경을 읽는 것 또한 하루를 보내며 저희 가족이 해야 하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으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사전을 찾아봅니다. 지도를 찾아보기도 하며 예뻐에 대한 사진, 성소에 대한 사진도 찾아봅니다. 매일 아이들과 성경을 읽다 보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와 순항 중에 있습니다. 매일 아이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이들과 저와의 거리가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또한 매일 소리내서 한국어 성경을 읽다보니 아이는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유익이 너무도 크고 값집니다.

한편으로 그 시간들을 되돌아 보면 매일 성경을 아이들과 함께 읽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야한다 소리 지르고 혼내며 시키다 보면 이렇게 읽히는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끈을 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라고 누군가가 제게 물어 보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멈출 수 없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간절히 찾던 제가 이제는 아이가 다 나았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벌주실 것 같아서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아픔을 통해 저희를 만나 주셨고 복 주시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 이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었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아이들이 살아가다 힘들고 지칠 때 아이들에게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걸 압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압니다.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 이경아 (산상기도팀, 주일음식팀)
이경아 자매님은 33페이지에 소개된 예준, 예찬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림에도 여전히

Santa Clara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2019년 12월30일, 중국 우한시 중심병원 의사 리원량과 다른 동료의사 7명이 SNS에 처음 감염 확산을 우려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 했을 때만 해도, 중국 당국이 허위 정보 유포등으로 이들을 소환했다고 했을 때만 해도 설마하고 지나가던 많은 뉴스 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세계 28개국에 약 4만 5천여명의 확진자와 1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안, 찬양대에서도 여러 우려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시온찬양대는 1년에 두번 진행하는 발성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해당주 토요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 반나절 동안 진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전처럼 연습을 진행해야하는가?” 생각해 보니 쏟아지는 질문들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들이 넘쳐났습니다. 유난히 감기로 많이 아프시고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이 겨울, 저 자신 또한 삼사일을 꿈쩍 못하고 독감으로 누웠었던지라 작은 찬양대 연습실에서 호흡과 기침을 주고받으며 몇시간씩 함께 연습해야 하는 시온찬양대를 생각하니 잠시 두려움이 몰려오며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발성세미나도 취소하고 연습도 일단 좀 최소화 하고, 이런 긴급대책을 세워야하나..”

불안한 맘이 스물스물 맘속에 들기 시작할 무렵 저는 습관대로 이번주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을 나즈막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곡이 영어곡 인데다 영어 가사가 더욱 주님께 친밀하고 개인적인 고백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영어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제 맘속에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And the earth will shake as Your Word goes forth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들이 진동하고

And the heavens will tremble and fall

하늘들이 떨며 떨어질겁니다.

BU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그러나 나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고백할 거예요.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오, 당신은 내 구주,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친구이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뤄지는 순간들”을 계속 지켜보며 두렵고 떨리는 맘으로 지켜보아야 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을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큰 지진과 역병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을 이 세상에서(눅21:11) 제가 해야 할 소명들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 오직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이 세상에 이뤄나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에 확신과 함께 소망이 넘쳤습니다.

저는 찬양대에 함께 이 소망을 나누며 발성세미나도, 찬양연습도 원래 계획대로 함께 잘 마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손목사임을 통해 선포된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인정하며 눈물범벅이 되어 하나님께 이 찬양을 다시 맘 다해 깊이 올려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어릴적 지루함으로 대했던 말씀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2020년 말씀통독의 해를 시작하며 읽기 시작한 레위기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를 지나는 내 맘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과 거기에 대한 나의 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자기가 직접 안수하고 자기가 직접 짐승을 잡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에게 피를 쥐서 그 피를 뿌리고 자기가 직접 가족을 벗기고 자기가 직접 각을 뜨고... 제사장에게 넘겨 뜯 각을 머리와 기름을 벌여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렸던..

그런데 하나님은 최악의 범죄자인 나를 죽이는 대신 자기 외아들, 예수를 그렇게 내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이시지 않았던가요? 죄값을 치뤄야 마땅한 흉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는 신이, 과연 어느 이야기에, 어느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이 사랑 앞에 제가 무엇이 두렵단 말인지요? 저는 세상에 흥흥한 소문과 사건이 날 때마다 여전히 그 분이 가르쳐주신 이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 을 보여주신 주님을 예배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마 호주에서 태어나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경배찬양의 판도를 바꿨던 Hillsong Church의 창립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인 Geoff Bullock도 국가 재난을 선포할 정도였던 최악의 산불로 고통당하는 자신의 나라, 호주를 위해 기도하며 자신이 작곡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 | 설정선 (시온찬양대 지휘자)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 조선,
 한글 성경을 품은
존 로스 선교사



존 로스(1841~1915)

1872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인 존 로스는 갓 결혼한 부인과 함께 30세의 젊은 나이로 중국 대륙을 향해 선교사로 출발하게 된다. 만주의 영구에서 사역을 시작한 존 로스는 중국어와 사서삼경을 공부하여 10개월만에 중국어 설교를 시작했던 뜨거운 열정의 선교사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아들을 출산한 아내 스텐어트가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 아내의 죽음으로 상실감과 고통 가운데 있던 존 로스는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시금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갈 수 없다면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보내면 된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바로 성경이다’

심
 양
 문
 광
 서
 원
 간

예수성표
 누가복음전서

광
 서
 판
 년

로스 선교사는 한문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때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압록강을 건너다니며 장사를 하던 조선인 이응찬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어학 교사 겸 조수로 채용하여 성경을 번역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1877년 로스는 'Corean Primer'를 발간 했는데, 이 책은 훗날 한국 선교사들을 위한 교재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로스는 이응찬과 한두 명의 한국인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하면서 1878년 봄까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하지만, 이응찬이 의주로 돌아가는 바람에 번역은 잠시 중단됐다. 그러나 로스는 성경 번역의 핵심 인물인 서상륜을 만났고, 그와 함께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번역을 이어가게 됐다.

1882년 로스가 한글로 펴낸 누가복음 번역서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이 된다. 누가복음 번역서를 내면서부터 'God'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1887년에는 신약을 한글로 완역한 '예수성교전서'가 드디어 발간된다.

이처럼 한글성경은 1874년부터 1886년까지 만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됐다. 그리고 이응찬, 서상륜 등 여러 한국인들이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 존 로스 선교사는 "한국인 학자가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했다. 한글 성경이 완성된 후 압록강 고려문 접경지대에 살던 조선인들과 한글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이들은 출간된 한글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한다. 조선 관군에게 발각되어 성경을 불에 태워 압록강에 버려야 했던 한 매서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로스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다.

“성경 씻은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성경 태운 재를 입은 사람마다 크게 성장하리라“

이후 한국인 개종자들과 성경 반포에 책임을 맡은 권서들은 성경을 짊어지고 마을마다 방문해 성경을 나눠주며 복음의 씨를 뿌렸다. 로스는 성경을 반포하기 수월한 한인촌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김청송을 '최초로 완성된 복음서를 가진 전도사' 겸 권서로 삼아 파송했다. 이들의 권서 활동으로 개종을 희망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조선 땅에는 서간도 한인촌, 서울, 압록강 연안의 평북 지역, 평양,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었고, 내한한 선교사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그들을 찾아와 세례를 요청하는 자들도 생기는 등 로스의 한글 성경은 한반도 내 기독교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존 로스 선교사는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눈물을 쏟으며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하나의 독립 국가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러한 헌신의 삶은 최초의 한국어 문법책과 최초의 한글 신약성경, 그리고 최초의 한국 역사책으로 열매를 맺었다.

조선인들에게 조선글로 된 성경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선교라고 고백했던 존 로스 선교사 그의 첫 발걸음이 조선의 닫힌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작은 사랑이었고 말씀이었다.

출처 | 선교사 인명사전, 선교 한국
정리 | 이정열 (편집부)

Navajo Nation을 다니와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나바호 선교 준비부터 선교현장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나바호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세워주신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단계인 선교보고와 간증으로 마지막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훈련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바호 선교 준비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팀원 전체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과 둘째는 저녁 8시가 되면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제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아이들은 "공동기도 시간이다~~"를 외치며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둘러 앉아 돌아가면서 나바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았던 기도 내용이 영혼구원과 순종이었습니다. 저를 닮아 무뚝뚝한 큰 아이는 선교 내내 함박웃음을 피우며 나바호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네 살 막내도 나바호 친구와 손을 잡고 다니며 나름의 선교사역을 감당했으며, 남편은 건축사역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덟 살 아들이 꼭 방문선교팀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아이를 전담 마크하기 위해 저도 방문선교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캐롤과 이벤지큐브 외워오는 것을 방문선교팀의 숙제로 내주셨습니다. "착한 학생" 컴플렉스가 있는 저를 움직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시작은 했으나, 업무와 다른 여러가지 일로 출발하는 날까지 다 외우지 못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벤지 큐브와 선교 훈련 책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Barstow 경유지를 거쳐 숙소인 Flaggstaff에 도착할 때까지, 열심히 캐롤을 듣고, 이벤지큐브의 내용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라이드팀은 순종을 원하시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길은 어둡고, 운전이 서툴러 어떤 여행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졸면서 운전해도 제가 하는 것 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남편의 생각입니다. 그런 저에게 처음 가보는 동네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라니... 겁도 나고 저 때문에 아이들을 놓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를 태우기 위해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아흔 아홉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신다는 말씀이 이런 마음일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하셨던 예수님이 나처럼 애가 타셨을까? 때론 거칠고 예의 없고 철딱서니 없는 아이들을 보며, 심호흡을 해야 했던 적도 있었지만, 우리의 이 사역이 언젠가 그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바호의 방문사역은 나바호 안 쪽으로 깊이 들어가 흙으로 다져진 비포장 도로를 한참 지나 세네 집 정도가 모여 사는 동네에 가서 한 두 가정을 방문하고, 또 다시 비포장도로를 달려 다른 동네로 이동하여 한 두 집을 방문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을이 띄엄띄엄 있고, VBS가 진행되는 2-3 시간 안에 마쳐야 하는 제약이 있어 많은 가정을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간략하게 저희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 계신 분들 수에 맞추어 성도님들이 준비해주신 선물상자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외부인의 방문에 얼떨떨하던 사람들도 선물을 받으면 고마워하며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되었습니다.

첫 가정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곧 나가야 하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아~~ 이번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가야하나보다...”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함께한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하시며 용기있게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는 조심스레 아주머니께 여쭙었습니다. 아주머니의 허락에, 우리는 준비한 이벤지큐브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팀원이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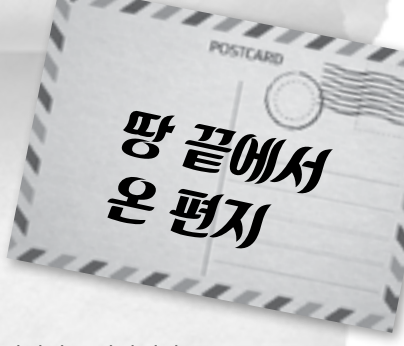


▲ 3일 동안 나바호의 땅을 밟으며 가정을 방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방문사역팀

마지막 날 방문한 가정은 성탄절을 맞이해 할머니를 찾아온 아이들 7명과 몇 명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눈을 맞추며 아이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와~~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감격과 기쁨이 넘쳤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때, 성령님께서 저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중학교 수학 선생님의 초대로 간 전도잔치에서 예수님을 믿겠냐는 질문에 이 아이들처럼 손을 들고 있는 제 모습, 인도하는 분을 따라 영접기도를 하는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이 아이들도 선택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의 힘으로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나바호 선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나바호 선교는 또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글 | 임은아 (사이판 목장, 도서부)



POSTCARD
땅 끝에서
온 편지

캄보디아에서 비오는 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이곳은 건기를 한창지나 온통 빨간 흙먼지로 뒤덮이고 가랑비가 오고 있습니다. 기온도 내려가 새벽엔 섭씨 21도 (69.8F), 낮엔 29도 (84.2F)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옷을 꺼입고 춥다고하며 다닙니다. 날씨가 이러면 감기 환자가 많아지는데, 중국발 바이러스와 시기가 겹쳐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29일에 CIA 학교부지 안에서 커뮤니티 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빈 교실이 없게 되므로, 센터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설립된 임마누엘 캄보디아 사단법인에서 주관이 되어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설계 변경등이 논의되고 있고, 정부의 허가 수속등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커뮤니티 센터 건축 시공회사를 물색하던 중, 저희 마을 센터 출신이던 소찌을 형제가 부사장으로 있는 Tancons 라는 캄보디아 건축회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소찌을 형제가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에서 Fee 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며, 사장님께도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형제는 부모님이 이혼한 가운데, 삼촌댁에서 살다가 9 학년을 마치고는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에 저희 센터가 열리게 되면서 학생으로 들어와 공부하고 대학공부까지 마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감사하며 보답하는 귀한 형제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있고 1~3세대 학생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들은 다 프놈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망은 이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세워질 학교, 커뮤니티 센터, 직업학교, 병원에서 함께 일하면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며, 어른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며 이 나라 사람들의 삶속에 예수님을 심는 총체적 선교 (holistic mission)를 하며 궁극적으로 이 선교의 주체가 이 나라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떠난 자리에 교회 목사, 학교 교장, 커뮤니티센터의 센터장, 병원 원장, 기술학교 교장 등이 캄보디아 사람이 되어야 사역이 잘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2006년부터)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이 캄보디아 사역과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하는 칭찬을 들을 욕심만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받을 칭찬입니다. 선교사의 받을 상을 함께 받으실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조 에스더 선교사 올림

SB 673 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먼저 SB 673 통과를 위해 서명 등 여러 모양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부터 교회와 많은 단체, 학부모들은 SB 673 발의안을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변태적인 성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라고 생각하고 이 발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SB48과 AB329에 의거해, 공립학교 K-12th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시간에도 성교육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투명한 성교육 공개, 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 아이를 수업시간에 뺄 수 있도록 하는 학부모 권리, 의학적인 검증이 된 성교육만 공개할 것이라는 골자를 가진 SB 673법안은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교육상원의원 투표 결과 5:2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작성한 편지가 3만 통이 넘고 이메일과 온라인 청원까지 무려 5만 개가 넘는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은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1월 15일, 법안 상정을 위한 공청회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중 99%가 이 법안 지지를 위해 한 명씩 마이크 앞으로 나가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1시간이 넘도록 지지 의사를 밝히는데 반해 겨우 13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Planned Parenthood, ACLU, LGBT, PTA 등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한 여성이 7만명의 PTA의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 법을 반대한다고 하여 그 법을 지지하는 많은 학부모를 분노케 했습니다. 임마누엘교회에서 함께 간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저희부부도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교육 시스템(System)의 과정(Process)에 아이들을 맡기라는 말만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행해지는 변태적인 성교육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방청객들 중에는 분노를 참지 못해 “거짓말!!” 이라고 소리를 질러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준비해 온 피켓을 들고 허탈하게 공청회장을 빠져 나온 SB 673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을 발의한 Mike Morrell 의원의 연설과 여러 Speaker들의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나누어진 성교육의 실태는 감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일까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피켓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DON'T MESS WITH KIDS' INNOCENCE!!". 순결, 깨끗함 (Innocence)...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귀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라고, 끊임없는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라는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귀한 이름들입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무너진 성벽을 막아선 사람들로 인해 가슴이 찡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내주었기에 이제는 다시 얻기 위해 비싼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유타주에서는 미국에서 19번째 주로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성공한 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SB 673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악의 세력이 점점 강해질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꿈꾸며 기도로, 또한 이 땅에서 주신 권리로 싸워나가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공청회장에서 법안의 지지를 위해 애기한 한 여성의 말이 생각납니다. "Thanks for waking up Christians" 이제 캘리포니아 크리스찬들이 모두 깨어나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법안 지지를 위해 온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신을 Christian, Church Pastor, Children's Ministry Pastor라고 소개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과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파괴해 가는 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깨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8)

공청회를 위해 새벽부터 갓 돌지 않은 찬송이들을 안고 세크라멘토까지 가서 당당히 마이크 앞에서 "My name is Eun a Cho. I have five kids. I strongly support this Bill." 이라고 외쳐준 조은아 부목자님, 큰 아이들을 학교도 안보내고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씩씩하게 세크라멘토까지 여전사처럼 달려와 준 박미라 부목자님, 서명용지를 수십통 가지고 가셔서 온 베이지역을 다 뒤져 서명을 사인받아 오신 박진숙 집사님, 공청회를 통해 미국교회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동받으셨던 조현주사모님...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고 돌아오자마자 운전해서 간 남편을 시작으로 다들 감기몸살로 드러 누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 한 기쁨이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SB 673 서명을 위해 엑셀작업과 편지우송작업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해 주신 손진우목자님 가정과 목장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적군의 침입을 보고 나팔수 되어 깨워주시고 이 모든 일을 지도해 주신 TVnext 김태오 목사님과 새라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 강하나 권사 (이고니온 목장 부목자)

2020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2020년은 성경 통독의 해다. 임마누엘장로교회는 지난 2016년부터 4년마다 전 교인이 참여하는 성경 통독을 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1300여 명의 성도가 성경 통독에 참여해 약 900명이 완독하는 기쁨을 누렸다. 성경 통독의 열기는 그 뒤로도 이어져 2017년 168명, 2018년 142명, 2019년 164명 등 해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다. 2017~2019년 3년 연속 통독자도 98명에 달했다.

교회는 성도들의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주일 예배 설교를 비롯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 모든 예배의 설교를 성경 읽는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 성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경의 맥락을 짚어주는 강의도 개설했다. 지난해 11월 '성경이란 무엇인가', '신구약 개요' 강의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매월 셋째주 토요일 '성경 통독 담당 및 소그룹 리더 모임'을 통해 다음달에 읽을 성경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연초에는 전 교인에게 성경 통독 일정표가 표시된 달력 및 탁상 달력을 배포,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분량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려했다.

특히 올해는 170여 명의 성경 통독 리더가 세워져 1년 동안 각 목장 혹은 소그룹의 성경 통독을 인도한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목장 혹은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채 혼자만의 외로운 성경 통독 마라톤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소그룹에 신청해 통독 완주에 성공하길 기도한다.

글 | 편집부



부모가 먼저 이야기에 빠져라

자녀세대가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 조 박사는 이유는 부모에게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즉 체험을 통해 부모가 성경 읽기를 즐거워해야 자녀에게 잘 전달 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재미없어 하는데, 자녀가 말씀을 사랑할까요? 부모가 먼저 성경 이야기가 재미있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야기로 풀어서 자녀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부모의 스토리텔링은 자녀로 하여금 성경을 더욱 친근하고 재미있게 느끼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흥미진진한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 것이죠.[1]”

“미래 세대는 교육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유태인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토라를 스토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태인들은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경 스토리를 들려주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성경은 모든 질문보다 크다’는 믿음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자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1]”

[1] 정형권, [기획] 성경통독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1) 성경통독, 어떻게 할까, 기독교신문, 2020.03.08

"일정한 시간, 장소 정해서 읽으면 도움"

임마누엘지는 지난 2월 15일 성경 통독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89명이 응답했다.

역시 성경 통독 리더 답다. 올해 처음 성경통독에 도전하는 리더들도 많았지만 이미 성경을 4번 이상 읽은 리더들도 상당했다. '지금까지 성경통독을 몇 번 했나'라는 질문에 4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리더가 24명이었으며 △처음 (24), △1번 이상 (17), △2번 이상 (12), △3번 이상 (11) 순이었다. 3분의 2 이상이 이미 한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한 셈이다.

지금까지 성경통독을 몇 번 하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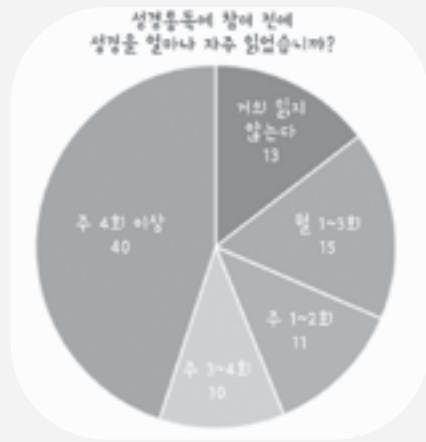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십니까?



리더들의 그간의 성경 통독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설문 결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리더들이 많았다.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냐'라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리더 (43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장소를 정해두고 하루 중 시간 날 때 읽는다는 응답은 25명, 시간과 장소가 일정치 않다는 응답자는 19명에 그쳤다.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과 오전 중에 성경을 읽는다는 응답 (64명)이 오후와 잠자기 전에 읽는다는 응답 (24명)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올해 성경 통독 참여 전에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었나'라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리더 (40명)가 주 4회 이상 성경을 읽는다고 답했다. △주 3~4회 (10), △주 1~2회 (11), △월 1-3회 (15), △거의 읽지 않는다 (13) 등으로 대부분의 리더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성경 읽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꾸준히 성경을 읽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4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20),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15), △말씀을 통한 위로 (10) 순이었다.



한편 '교회에 출석한지 얼마나 됐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20년 이상 (57), △10~20년 (12), △5~10년 (12), △1~5년 (8) 순이었으며, 연령대를 묻는 질문에는 40대 (41명)가 가장 많았고 △50대 (22), △60대 이상 (14), △30대 (12) 순이었다.



글 | 편집부



"어! 함께 읽으니 성경이 읽어지네!!"

Q 성경 통독 리더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목장 모임 중 목사님께 성경 통독 리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훌륭한 목원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하는 것이 주저됐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성경 통독을 해오던 터라 읽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리더의 자리는 부담이 되었는데, 잘 도와주시는 팀원들이 계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Q 성경 통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A 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일의 통독 일정에 맞춰 말씀을 읽고 목원들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만을 성경 통독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적극적으로 성경 통독에 참여하면서 유스 (Youth)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가족이 함께 서로 깨달은 점을 공유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소그룹 모임 순서지를 참고해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세지와 서로의 지난 삶을 나누며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Q 팀원들을 어떻게 독려하고 계신가요?

A 모두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서 사실 어떤 독려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제일 처음으로 올려주시는 부지런한 분부터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까지 매일 다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읽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단지 저의 역할이라고 하면 팀원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할 뿐입니다.



Q 교회에서 매달 있는 ‘성경 통독 소그룹 리더 훈련’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A 제게는 성경 통독 소그룹 리더 훈련 시간이 참 은혜의 시간이고 매번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목사님들이 준비하신 강의를 들으며 몰랐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되고, 성경의 맥도 다시 짚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상을 통해 ‘바이블 프로젝트’도 같이 보니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습니다. 다음 달에 읽을 성경 부분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성경 통독의 은혜가 배가되는 축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목사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준비해 오시는데 훈련 시간이 짧은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Q 섬기고 계신 소그룹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소그룹은 멕시코 칼리 목장(최동명 목사) 중 알마덴 지역의 세 가정이 모여있습니다. 최동명 목사님, 임광모 형제님, 그리고 저희 가정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게 되니 잊어버리거나 스킵하지 않고 더 부지런히 아침 일찍부터 말씀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한 절의 말씀만 올리지만 같은 본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거나 놓친 말씀을 다른 지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는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다해 힘써 지키며 죽는 날까지 마음에 새겨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글 | 김용준 (성경통독 리더, 멕시코 칼리 목장, 호산나 성가대)

성경 통독 리더가 추천하는 '영어성경 읽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생각이 바르고 지혜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니 말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한 행동이 뒤따르고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사람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 2016년 여름에 와서 2017년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3년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쉬운 우리말로 되어 있어서 내용 이해가 쉬웠고 읽는 것이 재미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와 내용을 나누는 가운데 장벽처럼 느껴지는 책명과 지명, 인물명을 영어로 정확히 발음하고 소통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버전 중에서도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직역한 제임 스왕 버전을 택했습니다. 고어체가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창세기를 지나고 나면 익숙해집니다. 한글 성경은 쉬운 버전으로 영어 성경은 어려운 버전으로 읽는 것이 모순되지만 우리말은 한 자어가 많고 뜻이 깊은 만큼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면 영어 사전을 찾는 것처럼 한자어도 한자 사전을 통해 의미를 바르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함을 영어 성경을 읽으며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11:18)

세상이 편리해져서 스마트폰 속에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말씀을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 율법책을 가지지 못했던 시대에는 들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써서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번거로우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성경 앱은 많은 앱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별됨이 없으니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자세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 매일 소그룹방에 성경 구절을 올리는 일은 생각하기에 따라 숙제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읽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나를 붙잡아주는 도움의 손길로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이 거뜬히 읽어내는데 내가 읽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이고 게으름임을 인정하고 함께 하는 가운데 자신을 다잡게 됩니다. 저는 2018년부터 속했던 일곱 명 소그룹에서 올해는 리더로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장을 만들며 성경을 읽는 것이 그야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으로 보여질까봐 따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리더 정주영 사모님과 팀원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같은 소그룹 안에서 새 리더로 함께 영어 성경을 읽으며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경을 한글로 읽으시는 분들, 필요한 부분만 영어로 발췌해서 읽으시는 분들, 영어로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해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언어적인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영어 성경 읽기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용한 내조자 십보라

카톡! 카톡! 아침마다 열심히 올려대는 성경 통독 그룹의 카톡소리는 멜로디가 되어 유쾌한 하루의 문을 엽니다. 2020년 성경 통독의 해를 맞아 교회에서 제안하는 모든 규율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 아침식사 전에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나 세수하고 식탁으로 갑니다. 성경을 펴놓고 목이 킁킁하여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출애굽기를 읽어 가고 있을 때 남편이 나옵니다. 킁킁한 목소리가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출애굽기 4:24~26 말씀이 저의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쉴 곳을 찾아 하룻 밤을 묵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차돌 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잘라 낸 살을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 주셨습니다. 십보라가 '피 남편' 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이제 첫 발을 내딛는데, 죽이려 하시다니. 가슴이 쿵쿵쿵당 뛰며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또 읽고 읽어보는데 할례 때문이었더라는 말씀이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 17:11)



모세는 어찌하여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을까요? 나그네 생활이 참으로 힘들고 정신없는 삶이었겠구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 아내 십보라의 행동은 기막힌 순발력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남편 모세를 살립니다. 그렇다면 십보라는 어떻게 할례를 알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모세를 통해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에는 아프다는 생각이거나 이방인으로서 할례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고 아마 반대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아내 십보라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차리는 빠른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십보라는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함께 생활한 반려자요, 죽을 뻔했던 모세의 생명을 구하고, 출애굽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운 조용한 내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아내 십보라를 보호 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두 아들과 함께 모세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출 18:5)

아내 된 자로서 조용하지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십보라와 같은 내조자로 있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글 | 이순남 부목자 (순다 목장 김광석 리더, 기드온300기도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출 4:24~26)



성경 통독을 통해 주께로 한걸음 더 가까이


돌이켜보면 교회에 출석하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면서도 저는 늘 주변을 맴도는 열정없는 신도였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어머니가 미리 등록해 놓은 학원을 빼먹으면 혼이 날까 두려워 억지로 책가방만 덜렁덜렁 흔들며 다녔던 열등생처럼 교회라는 공간은 늘 저에게 낯설고 편치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를 낳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 잦은 이사를 하면서 사는 동네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이곳 저곳 보따리 장수 처럼 삶의 터전을 옮겨다니다 보니 교회에서도 VIP 아닌 VIP 대접을 받으며 돌고 돌아 저는 다시 임마누엘 교회의 울타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먼 미국땅에 정착하고 살기 위해 왔지만 저는 늘상 관광객처럼, 외지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신앙 생활 역시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교회에 몸담고 있었지만 늘 초신자만큼도 안되는 믿음을 가진 구경꾼이었습니다.

이곳에 돌아와 남편과 딸, 저 이렇게 셋이 매주 주일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주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복은 오직 나만 비껴가는구나'란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반복되고 길었던 가시밭길의 순간들만 생각나면서 주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주일 학교와 어와나(AWANA)를 좋아하는 딸을 보면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우고,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자라 주기를 바라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유명한 전집을 들여 집안 곳곳에 두어도 한번도 보지 않던 아이가 매주 수요일 어와나 시간을 기다리며 이 구절을 밤이나 낮이나 읊고 또 읊었습니다. 딸 아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번뜩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교회라는 울타리는 우리 아이를 지켜 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차 마음속의 불안감은 안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마음보다 버텨낸다는 심정으로 살아온 우리 가정에서 딸은 너무도 건강하고 밝은 표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밑바닥을 여과 없이 함께 보고 지나왔음에도 딸은 어느 한군데 어두운 구석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원망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저희 가정을 어루만져주고 계셨나 봅니다.

가끔씩은 딸 아이가 “엄마는 왜? 하나님을 왜 안믿어? 하나님 말씀을 몰라?” 라며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의 모습에 대한 의문일 것입니다. 이런 딸 아이의 물음이 저에게는 심적으로 커다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즈음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학년인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매일

20분 책읽기 과제가 있어 우리는 같이 식탁에 마주 앉아 저는 그날 그날의 성경 분량을 읽고 딸아이는 책을 읽습니다. 가끔은 식탁 위에 모래시계를 두거나 휴대폰 타이머를 두고 우리는 시간을 다투는 경쟁도 합니다. 세식구가 각자 휴대폰, 테블릿을 들고 침대에서 빈둥거리던 저녁시간에 점차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저도 딸아이라도 이제는 무언가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잡음 없는 고요한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딸의 기억 속에 성경책을 기쁘게 읽던 엄마의 모습도 저장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오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경 구절을 카톡에 올리며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그날그날 마음에 닿았던 구절들을 올리며 내가 올린 것과 같은 구절이 올라오면 동질감도 느끼며 서로 응원합니다.

성경 통독에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레위기와 민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서 2월이 걱정되었는데 벌써 3월입니다. 2020년의 성경 통독이 단지 성경을 한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찾을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글 | 차연주 (도미니카 목장, 편집부)

성경통독, 자녀들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11학년 조유빈입니다. 유스부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성경 통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루 일정 중 성경을 중심에 둘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11학년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들, 학교 숙제와 대학준비 때문에 잠 잘 시간조차 부족하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스팀에서는 서로 대화하면서, 같은 자매 형제들과 매주 만나며 축복과 힘들었던 점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현재 유스팀에서는 각각 소그룹 일원들끼리 단톡방을 통해 매일 성경 읽기를 공유하고 학년별로도 단톡방을 이용해 같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읽은 내용 중 마음에 담았던 부분들을 단톡방에 올리고 기도제목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추가 내용을 원하는 학생들은 브라이언 황 목사님께서 매일 업로드하시는 개인 성경 통독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학교에 다녀온 후에 기도로 시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결

리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치고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왜 이 말씀을 보여주셨는지 물어보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공책에 씁니다. 암송구절은 동생과 함께 외우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외우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나 그냥 제멋대로 해결하고 싶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 삶은 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전도사님의 격려와 기도 덕분에 올해 성경 통독을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학생들에게 기도와 격려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글 | 조유빈 (유스부)



5년동안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5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5년 전부터 읽었어요. 처음 2년은 너무 읽기 싫고 힘들었어요. 왜 매일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해! 하며 짜증도 났어요. 엄마는 제가 그럴 때 마다 저를 혼내셨어요. 성경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은 읽다가 잠들기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며 성경만화책 ‘파워바이블’, ‘미술관이 살아있다’, ‘어 성경이 읽어지네’ 등의 책도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내용들을 모두 다 하나로 연결해서 보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2독을 마치고 3독을 시작할 때부터 성경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육의 양식을 먹듯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말씀을 읽다 보니 힘들 때 말씀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경말씀이 재미있어 졌어요. 가끔은 힘들지만 이제는 성경을 안 읽으면 마음이 찢려요. 안 하면 안될 것 같아요. 당연히 매일 읽어야 하는 것 같아요.

글 | 이예준 (유스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아플 때 엄마가 말씀을 읽어주셨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믿어졌어요. ‘저 말씀 속의 하나님이 내가 아픈 곳을 고쳐주시겠다’하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 교회에 갔었어요.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절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지금은 하나님도 안 아파요. 엄마랑 형과 같이 5년을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저는 처음 3년은 엄마와 형이 읽는 성경을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전 3독이 아니라 3듣 1독 이에요. 지금은 같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소리 내서 읽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성경 읽는게 많이 힘들어요. 말도 하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매일 혼나고 울기도 해요. 어떨 땐 엄마가 화나서 저에게 읽기 싫으면 읽지 말라고도 하세요. 하지만 전 혼나면서도 읽는 자리에 앉게 돼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예요. 힘들지만 제가 컸을 때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으려고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말씀을 매일 읽다 보니 설교말씀이 어렵지 않고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글 | 이예찬 (초등부)

**“성경을
읽다보니
말씀이
믿어졌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
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7)

유아부

영유아부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큰 도전입니다. 저도 4살과 1살 아이가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하시고 (밥 먹기 전/후, 자기 전, 아침 식사 전후 등) 읽으시면 아이들도 습관이 들어서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는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방법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꾸준함과 반복 안에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명하신 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글 | 김승균 목사 (교육부)

초등부

초등부 아이들 (3-5학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통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성경통독을 할 때에 같이 읽은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나요? 첫번째는 읽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 대해서는 1-2학년 아이들도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번째로 아이들에게 읽은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What happened?) 보다 **무슨 뜻인지 (what does it mean?)**를 볼 때에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경의 큰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 김승균 목사 (교육부)

유년부

2020년이 맞이하여 온 교회가 성경통독을 하게되어 기쁩니다. 이 계기로 온 가정에 단합과 회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꾸준히 잘하는 가정도 있지만 어려워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읽는 속도나 읽어야 하는 분량 등의 면에서 도전적인 것 같습니다.

유년부에서는 아이들의 성경 통독을 위해 두가지 팁을 드리려합니다.

첫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목적을 아이들에게 설명 해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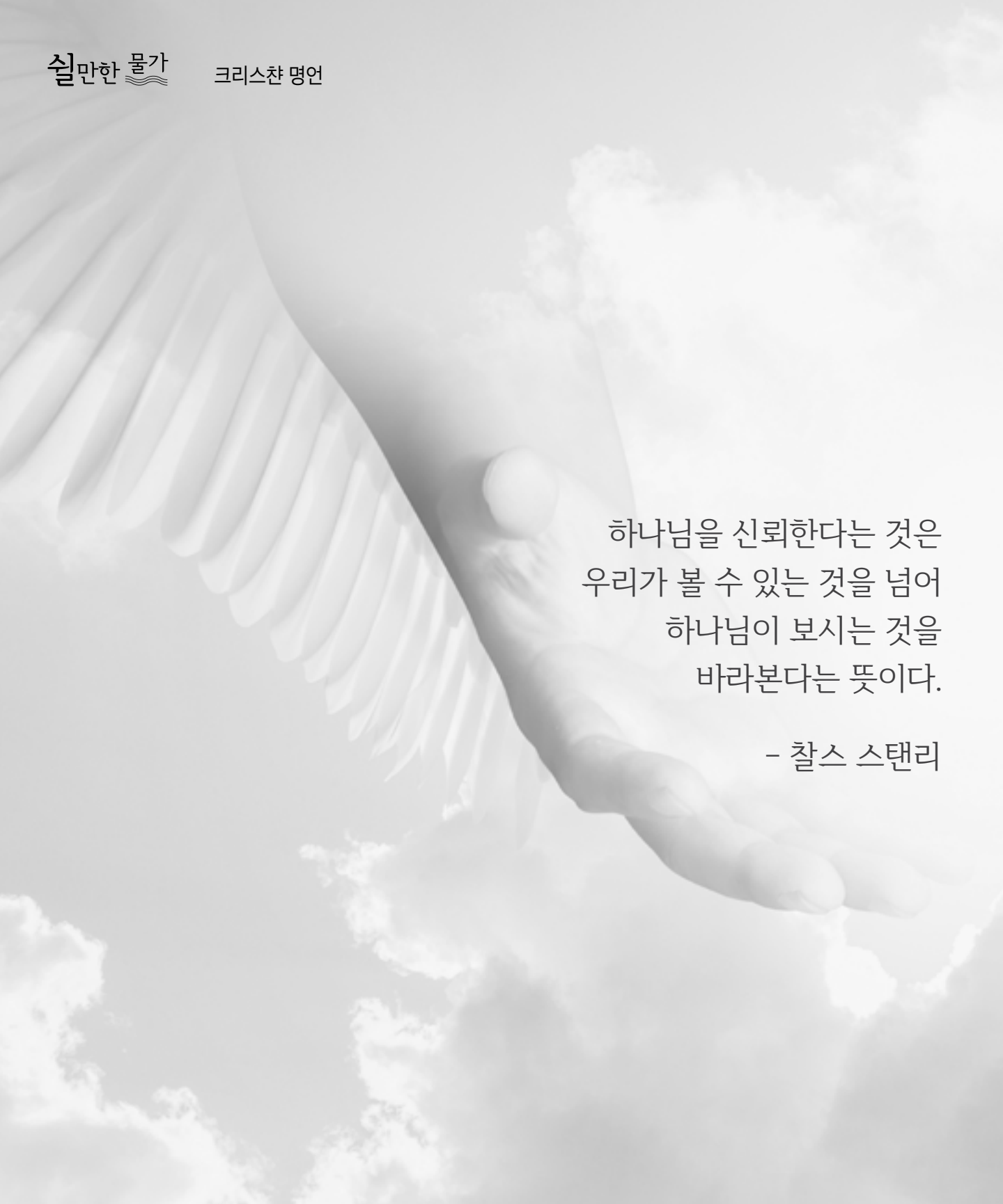
간단히 세가지로 말한다면, 1)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치자 섭리자 그리고 창조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창조물이자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2)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서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와 닮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는 목적을 확실하게 알려주는것이 우선입니다.

두번째로, 유년부 아이들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부모님과 같은 부분을 함께 읽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매 주 보내드리는 유년부 뉴스레터에서 설교 본문을 찾아 같이 읽고 Small Question과 Big Question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Small Question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고 Big Question은 아이들이 본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질문을 나누는 겁니다. 유년부 아이들에게 직접 생각하고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도와주는 것이 저희 유년부의 목표입니다.


유년부 아이들과 소통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언제나 연락주세요.

글 | 김성신 전도사 (유년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 찰스 스탠리

A grayscale image of a hand holding a large white feather against a cloudy sky. The hand is positioned in the center-left, with the thumb and index finger gently grasping the base of the feather. The feather is large and detailed, with many individual barbs visible. The background is a bright, cloudy sky, with the clouds appearing soft and ethereal. The overall mood is one of hope, faith, and divine presence.

Trusting God means
looking beyond
what we can see to
what God sees.

Charles Stanley -

말씀의 실상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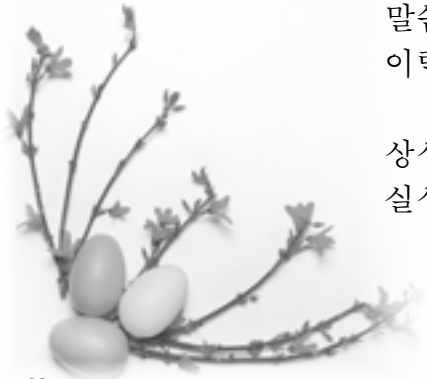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無明)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萬有一切)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열 개인 것도
이적(異蹟)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웁고

창밖 울타리 한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허막(虛漠)의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의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조약돌

김옥남

산골짜기 모나고 못생긴 돌멩이 하나
개울을 따라 꼬불 꼬불 구르고 흘러
바위에 부딪쳐 깎이고 깨어지며
폭풍우 흘탕물에 휩싸여 큰 바다 이르니

집채 같은 성난 파도 덥석 물었다 토해내며
굴리고 얼러 바닷가에 밀어 던지니
험상굿던 돌멩이 어데가고
반들 반들 조약돌 되어 자갈틈에 버려졌네

지나던 행인의 주머니에 넣어져서
사랑으로 깎고 닦아내니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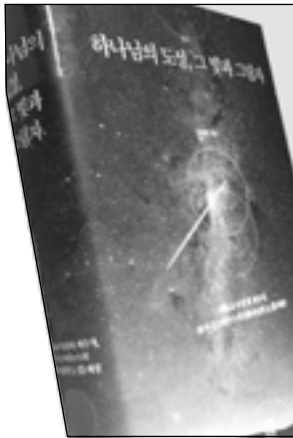
우리네 인생길 조약돌 같아라
주님 만나 새사람 되니

이젠 눈부신 흰옷으로 갈아입고
순종의 날개 달고
구름계단 타고 올라가
주님 앞에 서리라...



2

아픔이 길이 되려면_김승섭
데이터가 말해주는 우리가 아픈 진짜 이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_전광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링컨 대통령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신앙인의 모범과 교훈을 배우는 책

1

다니엘 처럼_김근주
낮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니엘서를 바로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김근주 교수의 새 저서



3

하나님의 도성, 그 빛과 그림자_김회권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각축하는 현실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4

6

하나님의 도성_아우구스티누스
인류 최초로 시도된 역사 철학서이자 역사 신학서!



그림책으로 드리는
가정예배_백흥영
아이도 즐겁고 부모도 행복한
가정예배



사후대책_조정민
모든 인생은 끝이 중요하다.
조정민 목사와 함께 읽는
요한 계시록

5

7





녹두는 맛이 부드럽고 구수할 뿐아니라 몸의 노폐물을 배출해 주고 열량은 적은 건강 식자재 입니다. 현대인 누구에게나 권할 좋은 곡식이지만 특히 우리 자매님들에게 더 없이 좋은 다이어트 음식이기도 합니다. 마침 얼마전 부터 코스코에서 신선한 유기농 녹두 (Mung Dal)를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좋더군요. 녹두로는 여러 음식을 할 수 있지만 뭐니 뭐니해도 냉동 보관이 가능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많은 양을 해 두었다가 먹을 수 있으니, 언제든 아이들 간식 혹은 목장 팻락으로도 안성 맞춤이지요. 그 밖에도 녹두로 입맛 없으신 노약자 분들을 위한 녹두죽, 녹두를 넣은 팔죽, 녹두 앙고 찹쌀 부꾸미 등등 조리법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녹두전을 전통 조리법에서 조금 벗어나 비교적 좀 쉽게 하실수 있는 레시피를 공유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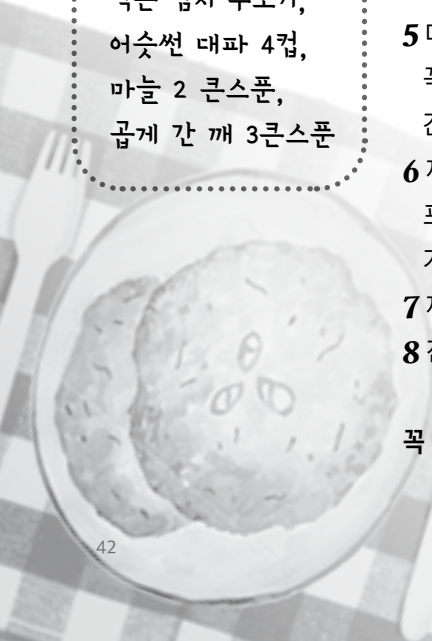
녹두전 재료:

- 녹두 5컵,
- 찹쌀 2/3컵,
- 해물 녹두(오징어 1마리나 기타 해물),
- 당면 1/3봉지,
- 익은 김치 두포기,
- 어슷썬 대파 4컵,
- 마늘 2 큰스푼,
- 곱게 간 깨 3큰스푼

- 1 녹두와 찹쌀을 섞어서 씻어 만나절 충분히 불려 줍니다.
- 2 오징어는 총총 썰고 (집에 있는 남은 해물로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오징어는 씹히는 식감이 있어 좋습니다)
- 3 김치도 고추가루를 조금 털어내어 총총 썹니다.
- 4 당면 반 봉지를 삶아서 총총 썰어 그냥 넣어도 되지만, 밑간을 하는 정성을 조금 기울여 준다면 맛이 조금 낫겠지요. 당면을 삶아서 간장 소금 깨 마늘 대파들과 섞어서 참기름으로 한번 볶아 주는 수고는 옵션!!!
- 5 대파는 사용 후 어슷썰어서 냉동 보관해도 되는 좋은 양념 재료입니다. 특별히 녹두전에는 꼭 대파를 권합니다. 다진 마늘 2큰스푼과 깨를 잘 섞어서 간이 배이도록 잠시 보관합니다. 간이 좀 짭짤해도 되겠지요.
- 6 재료가 다 준비되면 마지막에 불린 녹두를 갈면 됩니다. 이때 녹두의 묽기가 녹두전의 성공 여부 포인트입니다. 다른 재료가 축축한 것을 염두에 두고 녹두는 되직하게 갈아 주세요. 물론 믹서기가 잘 안 움직여요. 중간 중간 스푼으로 저어주세요.
- 7 재료를 골고루 잘 섞은 후 각자의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합니다.
- 8 전의 크기와 모양은 성격에 따라 결정 되더라고요.^^*

꼭 성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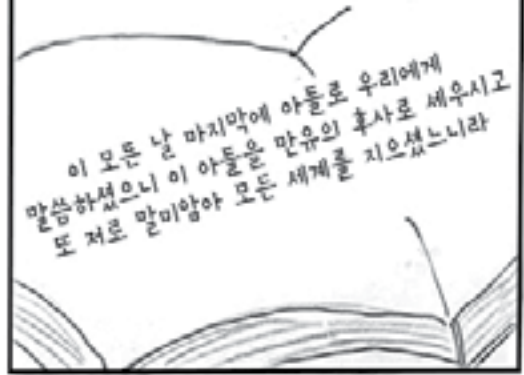
글 | 손경아 사모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



하나님은 마지막에 예수로
말씀하셨다 (히 1:1-2)



새 언약은 이미 완성되었다 (요19:30)



우리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인
십자가를 증거하는 언약맨들이다



글 그림 | 임명진 (호산나 성가대)

성경 통독 언약 순종 사행시

성경경을 읽기 위해
통독건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통독이해가 안가네, 하지만 포기 할 수 없지
독한 마음 먹고 꾸준히 읽다보니

언약제부터인지
통독속의 말씀이 마음에 젖어들며
통독조롭게 말씀을 읽게 되었네
독일토록 말씀이 함께하네
- 전기열 -

성경인 교인이면
통독력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
통독독 한번 안 한 채로 다른책
독서만 하기를 권하지는 않는다
- 김종욱 -

성경경통독이 돌아왔습니다
통독자년에 돌아왔습니다
통독째로 끝까지 읽어야 하는데
독하게 마음먹고 도전합니다
- 이용원 -

성경령이 오셨네
통독쾌하게 오셨네
통독안오시더니
독하게 다짐하여 매일 아침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경말씀을
통독청해서 듣고 읽고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통독크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통해 크나 큰 은혜와 축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약제나
통독속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통독전한 마음과 강한 믿음으로 죄에 절대로
독이 되지 말게 하소서!
- 민민정 -

성경령의 총만함을 받아
통독외하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통독탄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노라

언약제나 주님을 사랑할 것을
통독속합니다
통독종하며 주님만 따르기로
독신 계약서에 도장 찍습니다
- 황현민 -

언약제 오셨는지
통독속하신 것처럼 오셨네
통독종하세 순종하세
독일토록 주만 찬양하겠네
- 박영진 -

성취의 기쁨을 원하시나요?
성경의 기쁨을 아시나요?
통달의 기쁨은 경험하셨나요?
독수리 날개치는 믿음으로 창공을 비상하는 기쁨
이 여기에 있어요!
- 주은혜 -

성경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경 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요
통독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전교인
성경읽기
- 박지혜 -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경 건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통크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독하게 끝까지 성경을 읽어 보세요~~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 조혜진 -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종이 아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특권이
다!
- 김현미 -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기가 어려울지라도
통독이 어려울지라도
독하게 마음먹고 다 같이 읽어보아요
- 김상민 -

성령님 오세요! 임마누엘 2020 성경통독의 현장으로
성경외하는 마음으로
통독합니다
독서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2020 전교인
성경읽기! 성령님 오시옵소서!
- 한순애 -

성경을 매일 읽으면 하나님을
성경외하는 마음이 매일 자라며
통독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서로
독려하며 협력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순전함으로 믿고 따르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 박정민 -

Tiffany Lim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영 어연합예배와 중고등부, 초등부 예배실에서 영혼을 깨우는 듯한 맑은 목소리의 찬양이 더 기쁨과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임마누엘 교회 영어사역부의 부목사이자 찬양리더로 섬기고 있는 티파니 림 전도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피아노를 어떻게 그렇게 잘 치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저 어릴 때 피아노 정말 못쳤어요” 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내기 시작한 인터뷰,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자녀로서, 동시에 부모로서 간증을 마음 깊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티파니 림 전도사님 가정은 속초에서 부모님이 섬기던 작은 교회의 어린이 사역을 뒤로하고 그녀가 열네살이 되던 해 미국 뉴욕으로 이민왔다. 한국에서부터 섬기고 있던 어린이 사역을 위해 아이들 예배에 피아노 반주를 했던 그녀에게는 피아노가 너무 어려워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옆에서 계속 배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어머니가 계셨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는

결혼 전에 불교신자셨는데 “한 집 안에는 하나의 종교만 있어야 된다. 어찌 됐든 너와 나는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라는 불교신자 외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런 부모님 아래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다.

피아노가 너무 어렵고 싫어 배우는 시간들이 악몽같았던 한국에서의 경험에 비해 미국에서의 음악 교육은 테크닉이 아닌 자유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만 했다. 그러던 중 미국 고등학교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음악에 대한 흥미를 알게 되었고 10학년 때부터는 유스 프레이즈 팀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선생님께서서 혼나기만 하며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던 피아니스트 소녀를 하나님께서는 머나먼 이곳 미국의 교회로 이끌어 쓰임을 받게 하신 것이다.

공부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동시에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란 맏딸인 티파니 전도사님, 그러한 딸에게 더 넓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뜻을 품고 이 가정의 미국 이민 생활 =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시작되었다.

내가 네 인생을 카운셀링할 것이니

사실 그녀와 부모님에게는 각각의 우상이 있었으니, 그녀에게는 부모님이, 부모님에게는 맏딸인 그녀였다. 대학교에 입학해 프리메드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온 그녀의 인생에 대한 시험이 시작되었다. 자신이 의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적성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부모님의 세상에 그려있는 사각형 안에 맞지 않는 자신이 모자라게 느껴지고, 자신 안의 미움이 찬 것이다. MENTAL BREAKDOWN (정신 고장) 후 찾아온 우울증과 그로 인한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라는 진단이 그녀에게 내려졌다. 2학년올 마칠 때 즈음 폭발하여 결국은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지난 후에야 주변 분의 도움으로 먼 교회에서 운영하는 전문적인 카운셀링을 받게 되었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카운셀링을 통해 조금씩 치유를 받던 중이었다. 의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좌절해 있던 그녀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너의 능력으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내 안에서 완전히 순종할 때에, 나는 너를 사용하여 일을 할 것이다” 였고, 곧 신학교에 지원을 하며



치유를 해보겠다는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시작한 신학교 입학 지원, 그 지원 에세이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어떻게 지금까지 관여하셨고 인도하여왔는지”를 고백하는 과제였다.

“하나님! 하나님이 제 인생에 동행은 하셨지만, 정말 제가 힘들 때, 제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는 어디 계셨나요?”

에세이를 앞두고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녀를 꽃피는 따뜻한 봄으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부딪히며 깨지며 터질 때 그 안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꼼꼼하게 보여주셨다.

내 안의 우상을 버려야 살 수 있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한 말팔로서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렸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인생의 카운셀링을 맡기자 그녀의 사각형 안에는 없던 신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이제는 우상이 아닌 부모님께 상의가 아닌 통보를 드렸다. 부모님께서서는 부모님께 불순종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 당신들도 기도하고 응답받을 기회를 위한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갈라지고 상처받은 가족을 함께 부르시며 일하셨고,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신학의 길이 시작되었다.

여성사역자로 강하게

티파니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은 많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매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 이 더 깊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아마도 더욱 높아졌나보다. 아버지의 건강문제, 어머니와 여동생의 교통사고, 다니던 교회의 화재는 물론 집의 화재 등 그녀를 흔드는 일들이 계속됐다. 신앙생활은 더 쉽지 않았다. 장로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 온 그녀에게는 여성사역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 신학공부를 가로막는 주변의 사건을 겪을 때 마다 여성은 사역하면 안된다는 뜻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 고민하며 기도를 이어나갔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 되면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나오는대로 연주를 시작해요. 떠오르는 대로 찬양과 이어지는 기도를 하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결국 하나님은 제가 가졌던 갑갑한 마음을 뚫어내시죠. 제 입에서 “예배합니다” 찬양이 나올 때 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틀린 것이라면 제발 스탱해주세요” 그러나 지나고보면, 그녀가 신학을 시작함과 동시에 마음 속에 가장 큰 짐으로 있던 것들을 사탄이 터치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단련하며 이겨내는 과정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신 것이다.

“제가 공부하기 싫어 제일 마지막까지 미뤘던 구절이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여성은 사역자의 길을 걷지 말라고 하실까봐 두려워서였죠. 어느날 같은 고민으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 성경구절을 직접 헬라어로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안의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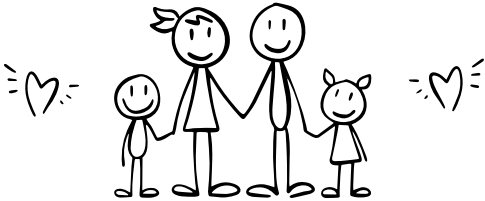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디모데전서 2:12)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4:34)

나에게 있어 찬양 = 숨쉬는 것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처럼 티파니 전도사님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찬양도 크게 하고 손도 마음껏 들고 싶고 또 크게 찬양하고 싶은데, 하면 한다고 안하면 안한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신학을 공부하며 직면한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주님이 간절히 필요했고 주님을 꼭 만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만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였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헤쳐나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 누가 보는 것도 신경 안쓰고 주님만을 위해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강단(깡)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녀의 히스페닉 교회에서의 섬김의 경험도 큰 배움이었는데, 그들은 암전하게 경직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 보다는 부자유함을 뚫어내고 하나님께만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사회 엘리트 계층이나 마약하고 막 나온 홀리스 등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구르고 자복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곳에서 하나님 외에 무엇이 보이겠는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한 저의 팁 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며 시험에 든 사람이 있을까 의식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찬양과 기도로 스스로 뚫어 내야 할 문제인거죠"



부모님의 No.1 과제는 자녀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주는 것

우리 많은 부모들의 고민을 다 읽고 있는 듯, 우리시대의 이민자 가정으로, 부모님의 딸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티파니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인터뷰에 참여한 편집팀원들이자 가정의 어머니인 자들의 가슴이 뛰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갖도록 돕는 일에는 아주 열심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길을 열어 주는 일은 열심히 못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배 중에, 혹은 말씀을 읽으며 샹송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쉽게 망쳐질 수 있는 많은 갈림길 속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 곁에 있을 얼마 안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면서 혹시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실수를 하실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실수 하셔도 되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까요, 일단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머지는 모두 덩으로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새벽예배, 찬양예배 등 모든 예배마다 부모님을 따라 다니며 교회 안에서 보낸 유년시절. 부모님 무릎 위에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매주 금요일 밤은 말씀과 찬양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는 부모님 방에서 다 같이 잠드는 선물을 받았던 한국에서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티파니 림 전도사님. 그리고 14살의 작은 이민자 소녀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 천국이 땅에 내려오는 듯한 기쁨을 느꼈던 그 예배의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자로 안과 밖이 단단한 여성 사역자로 거듭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숨쉬며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하신 대로 빛어내신 순간들임을. 설 새 없이 나오는 그녀의 찬양은 마치 소중한 간증과 같은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성질에 맞춰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어떤이에게는 꽃을 주시기도 하지만 소심하고 걱정 많은 저에게는 자꾸 떠트리시며 계속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글 | 편집부

사진으로 보는 임마누엘



손원배 담임목사님 생신



손원배 담임목사님의 예수 네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월 12일, 1부, 2부, 3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서 목사님 생신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매년 친교부에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권사님들께서 전교인들에게 써빙을 해오셨는데, 올해는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생신이어서 각 예배 후에 케이크를 자르고 성도님들과 함께 축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원배 목사님! 26년간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년부 리더 수련회



2020년 2월 1일 임마누엘 장로교회 비전청년부 리더들이 함께 북가주 금식기도원으로 일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2020년 한 해를 감사와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길 바라며 각자 섬기는 위치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2020년 한 해 말씀으로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비전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서로를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리더 한사람 한사람 쓰임 받길 다짐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리더 한 리더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올 한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글 | 비전청년부 회장 김용수 형제

지난 2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2월 성경 통독 리더 훈련이 대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이산돌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개요를 강의하셨습니다. 참석 인원은 전체 소그룹리더 169명 중에 124명이 참석하였고, 편집부에서 주관하는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설문 조사에 89명이 참여했으며, 강의 후에 초원별로 리더 소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 그룹의 리더들은 그룹의 특징과 진행 과정 등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과 도전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성경 통독에 참여한 928명의 성도님들께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이 요한 계시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통독 소그룹 리더 모임



3월 8일 공동의회





오후 1시경, 시작 시각 30분 전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로비에서 display 되어 있는 후보자들의 사진을 바라보기도 하고, 줄을 서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흰색, 분홍색, 파란색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모습. 투표하기 전 목사님의 지시사항을 경청하고, 다섯분의 장로님 선출,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선택할 때마다 매번 주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을 뽑는 진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신 여러 선거위원님, 순조롭고 평화롭게 진행된 공동의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확인하는 우리 임마누엘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글 사진 | 윤영숙 (편집부)

Youth 겨울 수련회를 다녀와서...

JASON CHOI (9TH GRADE)



저는 몇 달전 설교를 통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님을 통해 제게 주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과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삶을 그 분께 바치고, 그 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련회 전에 제 삶은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노력하면서 저의 죄와 약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전보다는 확실히 더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지만, 목사님이 수련회에서 언급하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수련회에 참여한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

껴졌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동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이 회복되었으며, 그 분이 앞으로 저를 치유 하시고 저를 위해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는 중에도 저를 묶고 있던 사슬에서 해방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큰 죄 중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만은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 가장 위험합니다. 다른 모든 죄에는 육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 징후가 있습니다. 정욕은 강한 욕망을 동반한 육체적 죄이고, 탐심은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자 하는 육체적 죄이며, 탐욕은 무엇인가를 강하게 갈망하는 정신적 욕망이며, 나태는 게으르고 끊임없이 쉬고자하는 욕구이며, 분노는 타인에 대한 불타오르는 화를 의미하며, 시기 는 타인에 대한 질투를 나타냅니다. 제 생각에는 교만은 나타내는 표징이 없어 보입니다.

가족의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유교적 사상으로 인해 아시안 사회에서는 이런 교만이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겪고 있지만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덜 눈에 띄고 위험합니다. 저는 항상 최고가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든 핑계였습니다.

크리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는 저의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죄의 인식을 통해 계시가 생겼습니다. 비록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더 나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통합 미적분을 잘하는 사람이나 저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저나 사전 전체를 외운 소녀나 모두 소중합니다. 저는 브라이언 목사님만큼 하나님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붙이려고 하는 라벨이 무엇이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란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저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외톨이입니다.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저의 짐을 내려놓을 유일한 출구는 하나님뿐이었기에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고, 솔직히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같은 또래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INREACH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저는 진심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그들은 모두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족이란 울타리 밖에서 처음으로 환영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수련회에서 저는 신입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제 친구였지만 저는 그들 앞에서 부드럽지 않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정직하였기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수련회 동안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되는 기도로 탈수 증세가 오기도 했지만,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FOR SOME BACKGROUND, I WAS SAVED JUST A FEW MONTHS AGO WHILE REFLECTING ON A SERMON AND REALIZED THAT I COULDN'T OVERCOME MY SIN BY MY OWN POWER- I RECEIVED THE INCREDIBLE GIFT HE HAD GIVEN ME THROUGH JESUS CHRIST AND FINALLY UNDERSTOOD THAT I NEEDED TO PUT FAITH IN GOD; THEREFORE, I DEDICATED MY LIFE TO HIM AND DECIDED TO SERVE HIM, OBEY HIM, AND STRIVE TO LIVE LIKE JESUS DID.



LIFE WASN'T NECESSARILY HORRIBLE BEFORE RETREAT. I WAS DEFINITELY DOING BETTER THAN BEFORE, AS I STRIVED TO OBEY GOD AND RECOGNIZED MY SINFULNESS AND WEAKNESS. I LOVED GOD MORE THAN BEFORE, BUT I WASN'T FILLED WITH THE INEXPLICABLE JOY THE YOUTH PASTOR HAD MENTIONED IN THE LEAD-UP TO RETREAT.

THE REASON I CAME TO THE RETREAT WAS BECAUSE OF MY ANXIETY. I FELT PHYSICALLY AND MENTALLY WEAK, AND NO MATTER HOW MUCH I READ THE BIBLE OR PRAYED, IT FELT LIKE GOD DIDN'T ANSWER ME. I STARTED DOUBTING GOD, AND WHILE MY ANXIETY DIDN'T SUDDENLY DISAPPEAR DURING RETREAT, MY FAITH IN GOD WAS RESTORED AND I TRUST THAT HE WILL EITHER HEAL ME IN THE FUTURE OR DO SOMETHING GREATER. WHILE I STILL HAVE ANXIETY, I FEEL THAT I AM LIBERATED FROM SOME OF THE CHAINS THAT USED TO BIND ME.

MOVING ON, ONE OF THE BIGGEST SINS I'VE STRUGGLED WITH IS PRIDE. IN MY OPINION, PRIDE IS THE MOST DANGEROUS OUT OF THE SEVEN DEADLY SINS. ALL THE OTHER SINS HAVE PHYSICAL, EMOTIONAL, AND/OR MENTAL MANIFESTATIONS THAT ARE EASY TO SPOT- FOR LUST, YOU FEEL STRONG DESIRES AND PHYSICALLY SIN, FOR GLUTTONY, YOU EAT OR DRINK IN ABUNDANCE, FOR GREED, YOU STRIVE STRONGLY AFTER WHATEVER YOU ARE GREEDY FOR, FOR SLOTH, YOU ARE LAZY AND PERHAPS SLEEP INTERMINABLY, FOR WRATH, YOU FEEL BURNING ANGER TOWARD PEOPLE, AND FOR ENVY, YOU FEEL STRONG JEALOUSY TOWARD ANOTHER. BUT PRIDE, AT LEAST FOR ME, WAS HIDDEN.

PRIDE IS OFTEN PREVALENT IN THE ASIAN COMMUNITY AS A RESULT OF THE CONFUCIAN IDEAL OF BRINGING HONOR TO YOUR FAMILY- AN IDEAL THAT IS SO INGRAINED IN THE MINDS OF NUMEROUS PARENTS AND EVEN CHILDREN. THIS MAKES IT EVEN LESS NOTICEABLE AND DANGEROUS, SINCE A LARGE POPULATION OF THE KOREAN SOCIETY SUFFERS FROM PRIDE BUT IS COMPLETELY OBLIVIOUS TO IT.

I WOULD ALWAYS FEEL THE NEED TO BE AT THE TOP AND DO BETTER THAN OTHERS. I CONVINCED MYSELF THAT THIS WAS SIMPLY BECAUSE OF MY ASPIRATION TO SUCCEED IN LIFE, BUT THAT WAS SOMETHING I MADE UP BECAUSE I DIDN'T WANT TO ACKNOWLEDGE MY SIN.

DURING PASTOR CHRIS'S SERMON, I REALIZED THAT THE REAL REASON I WANTED TO BE AT THE TOP WAS BECAUSE OF MY PRIDE- BECAUSE I COULD NOT STAND THE FACT THAT THERE WAS SOMEONE OUT THERE SMARTER THAN ME, BETTER THAN ME, WISER THAN ME, MORE SPIRITUALLY FOUNDED THAN ME.

HOWEVER, THROUGH THE RECOGNITION OF MY SIN CAME A REVELATION- THAT ALTHOUGH THE WORLD MAY DESCRIBE ANOTHER AS BETTER, IN GOD'S EYES, I AM STILL LOVED JUST AS EQUALLY AS THE GUY WHO KNOWS INTEGRAL CALCULUS. I AM AS PRECIOUS AS THE GIRL WHO MEMORIZED THE ENTIRE DICTIONARY. I AM AS WELL-KNOWN TO GOD AS PASTOR BRIAN. WHATEVER LABELS THE WORLD TRIES TO PUT ON ME DOESN'T MATTER AS LONG AS I AM LOVED BY GOD, AND HE DOES LOVE ME. THIS LEADS TO THE NEXT TOPIC: LOVE.

I'M A LONELY PERSON. I'M SHUNNED AT SCHOOL AND I'M PRACTICALLY A SOCIAL PARIAH. I HAD NO ONE TO RELY ON, AND I FELT LOST BECAUSE THE ONLY OUTPUT I HAD FOR MY BURDENS WAS GOD AND, TO BE COMPLETELY HONEST, I WANTED A PERSON AROUND MY AGE TO TALK TO. SO WHEN I FIRST JOINED IN-REACH, I FELT GENUINELY LOVED. I QUICKLY MADE NEW FRIENDS, AND THEY ALL LOVED M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OUTSIDE OF MY NUCLEAR FAMILY, I FELT ACCEPTED. HOWEVER, I DIDN'T KNOW THAT IT WAS JUST A SMALL TASTE OF GOD'S LOVE.

AT RETREAT, I GREW CLOSER TO THE FRESHMAN BOYS. THEY HAD ALWAYS BEEN MY FRIENDS, BUT I WASN'T VULNERABLE IN FRONT OF THEM AND DIDN'T HAVE CONFIDENCE IN THEM. HOWEVER, THAT CHANGED AS WE OPENED UP AND WERE HONEST

WITH EACH OTHER. WE ACCEPTED EACH OTHER FOR OUR BROKENNESS, AND THERE WAS NO SHAME WHATSOEVER.

ALSO DURING RETREAT, I TRIED TO LOVE OTHERS THE WAY GOD LOVES ME. AND WHEN I PRAYED FOR MY BROTHERS, WHEN I LOVED THEM, I ALSO FELT LOVED FOR SOME REASON. I CAN'T QUITE EXPLAIN IT, BUT I NEVER GREW TIRED WHILE PRAYING FOR MY BROTHERS. I SHOULD HAVE BEEN DRAINED, AS I PRAYED FOR AN INNUMERABLE.

ANNETTE KIM (10TH GRADE)



2018년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이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받고 복음을 나누기가 너무 두려워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으로 제 자신에게 실망한 상태로 12월 가족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여전히 험담, 거짓말, 욕설, 질투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떠올릴 때마다 수치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사람들이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을 때 저를 다르게 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제가 타인의 외모를 조롱하고 저주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말주변이 부족한 제가 믿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끼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결점투성이인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부족한 제 말주변이, 가장 친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었던 가장 훌륭한 선물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때때로 제가 넘어져도 자비가 넘치시는 주님은 저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1년 전 저를 받아 주신 그날 이후로 저의 죄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과 때때로 제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매일 저를 단련하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갈구하는 기도 예배 시간에, 저의 비겁함과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구원을 받은 후에도 할 수 없었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 예배 전에는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예배 후 저는 더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 자신의 결함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채워주신 기쁨과 힘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성령의 열매가 자라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늘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를 단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가득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용기를 제게 주셔서, 팀원 중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께서는 제 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넘어질 때 저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악마의 거짓말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매일 매일이 죄와의 싸움이며, 성령께서는 두려움과 수치심, 불안에 맞서 싸우고 극복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약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와 같이 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WHEN THE LORD HAD SAVED ME BACK IN 2018, I THOUGHT I WOULD BECOME A COMPLETELY NEW PERSON IMMEDIATELY AND THAT ALL OF MY FEARS WOULD DISAPPEAR. HOWEVER, AS 2019 PROGRESSED, I BECAME VERY DISCOURAGED BECAUSE I STILL STRUGGLED WITH SIN AND BECAUSE I WAS TOO SCARED TO SHARE THE GOSPEL. BY THE TIME I ARRIVED AT THE FAMILY RETREAT IN DECEMBER, I WAS VERY DISCOURAGED AND DISAPPOINTED IN MYSELF. THOUGH I HAD RECEIVED JESUS AS LORD, I STILL FOUND MYSELF COMMITTING THE SINS THAT I THOUGHT I WAS FREED FROM, LIKE GOSSIPING, LYING, SWEARING, JEALOUSY AND

HURTING OTHERS. WHEN I REFLECTED ON THOSE INSTANCES, I DISTANCED MYSELF FROM GOD BECAUSE I WAS FULL OF SHAME. AT SCHOOL, I REALIZED THAT PEOPLE SAW ME DIFFERENTLY WHEN I TOLD THEM I WAS CHRISTIAN. FOR MY NON-CHRISTIAN FRIENDS WHO KNEW I WENT TO CHURCH, I FELT TOO HYPOCRITICAL TO TELL THEM ABOUT JESUS, BECAUSE THEY HAD BEEN WITH ME WHEN I MADE FUN OF OTHERS' APPEARANCES AND WHEN I USED MY MOUTH TO CUSS. ALSO, I WAS INSECURE ABOUT MY LACK OF ELOQUENCE AND MY FEAR OF APPROACHING OTHERS TO DECLARE MY FAITH AND SHARE THE GOSPEL. MY FEAR OF REJECTION, SHAME OF MY OWN FLAWS, AND INSECURITY OF SPEAKING PREVENTED ME FROM WANTING TO LET OTHERS KNOW OF THE WONDERFUL GIFT THAT I WANTED MY NON-BELIEVING BEST FRIENDS TO ENJOY.

HOWEVER, THROUGH THE RETREAT, THE LORD REMINDED ME THAT EVEN THOUGH I STILL FALL SOMETIMES, I'VE BEEN FREE FROM THE BONDAGE OF SIN SINCE THAT BEAUTIFUL DAY THAT I HAD ACCEPTED HIM A YEAR AGO BECAUSE I AM HIS CHILD WHO HE WILL NEVER STOP LOVING. HE REMINDED ME THAT I AM

UNABLE TO BE RIGHTEOUS ON MY OWN, SO HE IS REFINING ME AND POURING OUT HIS MERCIES UPON ME EVERY SINGLE DAY, AND THAT HE HAS BEEN CHANGING ME EVEN THOUGH I DON'T SEE IT SOMETIMES.

THEN, DURING ONE SERVICE WHERE WE PRAYED FO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 PRAYED FOR THE SPIRIT TO FILL ME TO OVERCOME MY COWARDLY AND SHAMEFUL HEART. I ALSO PRAYED FOR HIM TO FILL ME SO THAT I COULD SHARE THE GOSPEL, SOMETHING THAT I HAD NEVER BEEN ABLE TO DO EVEN AFTER I HAD BEEN SAVED. BEFORE THAT SERVICE, I WAS SCARED TO GO BACK HOME AFTER RETREAT, BUT DURING THE TIME OF PRAYER, HE FILLED ME WITH JOY AND STRENGTH AND COURAGE TO LET HIM BE KNOWN WITHOUT BEING ASHAMED OF THE GOSPEL OR HATING MY FLAWS.

I WALKED INTO THE FAMILY RETREAT FULL OF SHAME BECAUSE I THOUGHT THAT THE FRUIT OF THE SPIRIT HADN'T BEEN GROWING IN ME FOR THE PAST YEAR, BUT I WALKED OUT OF THE RETREAT REMINDED THAT THE LORD IS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AND THAT HE IS SHAPING ME TO BE MORE LIKE CHRIST. I CAME HOME FILLED WITH SO MUCH JOY, FALLING EVEN MORE IN LOVE WITH THE BEAUTY OF CHRIST. THE LORD FILLED ME WITH COURAGE TO SPEAK TO OTHERS ABOUT HIM. I WAS EVEN ABLE TO SHARE THE GOSPEL TO ONE OF MY TEAMMATES A WHILE AGO, AND HE PUT THE WORDS IN MY MOUTH AND GAVE ME CONFIDENCE. GOD IS A GOD THAT DOESN'T LEAVE ME BEHIND BUT IS A GOD THAT PICKS ME UP WHEN I FALL, AND HE IS A GOD WHO IS STRONGER THAN ALL OF THE DEVIL'S LIES. EVERYDAY IS A FIGHT AGAINST SIN, AND THE SPIRIT IS HELPING ME FIGHT AND OVERCOME FEAR, SHAME AND INSECURITY. NOW, I AM NO LONGER ASHAMED OF MY WEAKNESS, BUT I FIND JOY IN THE PROCESS OF BECOMING MORE LIKE JESUS THROUGH THE WORK OF THE SPIRIT.

DA HEE (ESTHER) YANG (10TH GRADE)



지난 수련회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커뮤니티의 도움을 통해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체험을 통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한 저를 돕는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믿음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제 인생에서 가진 모든 특권과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일년 내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에게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스스로 정한 목표에 도달 할 수 없을 때 낙담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저에게 커다란 도전처럼 느껴졌고, 그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느끼던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없었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도 제 앞에 놓인 더 많은 도전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잊어 버렸고 교회에 가는 것은 평범한 일요일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하

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친구들, 청년 목회자, 가족을 통해 저에게 말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단순히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저를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첫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분께 냉담한 마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수련회 내내, 저는 다른 사람들과 제 마음속의 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설교 때마다 제 마음에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정직할 것”에 대해 제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 저는 저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저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마치 모든 속박에서 풀려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 분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소그룹과 다른 학년 학생들에게 제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간증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분의 계획과 길을 보여 주심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저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기도 중에 저와 같이 삶에서 고통 받는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통성기도를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수련회가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분을 의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저는 토요일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혹은 사역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때마다 항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라며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겪었던 두려움과 고통을 대해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여정에서 직면 할 수

있는 더 많은 난관에 대비하기 위해 저의 정신과 신앙을 강화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려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께서는 갈등조차도 저와 저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축복이었습니다.

LAST RETREAT, I WAS ABLE TO FEEL THE GRACE AND LOVE OF GOD IN MY LIFE AND THE SUPPORTIVE COMMUNITY HE PROVIDED ME WITH. THEREFORE, I GOT CONFIRMED AND CONTINUED TO GROW MY FAITH WITH THE HELP OF FAMILY AND FRIENDS BY CONSISTENTLY READING THE BIBLE, REFLECTING UPON IT, AND PRAYING. I CONTINUED THE DEEP CONNECTION I HAD WITH GOD AND WAS GRATEFUL FOR ALL THE PRIVILEGES AND OPPORTUNITIES I HAD IN MY LIFE. I THOUGHT THIS RELATIONSHIP WOULD CONTINUE FOR THE REST OF THE YEAR, BUT IT DID NOT.

AS I ENTERED THE FIRST SEMESTER OF SCHOOL IN SEPTEMBER, I WAS FACED WITH VARIOUS FEARS. I FEARED CHALLENGING MYSELF AND REACHING OUT TO OTHER PEOPLE IN A NEW ENVIRONMENT, AND WAS FREQUENTLY DISCOURAGED AND DISSATISFIED WHEN I COULD NOT REACH THE GOALS I SET UP FOR MYSELF. THE TRANSITION INTO A NEW ENVIRONMENT FELT LIKE A HUGE JUMP AND CHALLENGE TO ME. THEREFORE, I WAS NOT ABLE TO EXPERIENCE TRUE HAPPINESS AND JOY I USED TO FEEL IN MY EVERYDAY LIFE, AND EVEN WHEN I ACHIEVED A GOAL, I WAS OVERWHELMED BY MORE CHALLENGES TO COME. THAT WAS WHEN I STARTED TO DRIFT AWAY FROM GOD. I CONSTANTLY FORGOT TO READ THE BIBLE, AND GOING TO CHURCH JUST BECAME A PART OF MY REGULAR SUNDAY ROUTINE. I DID NOT TRY HARD TO TALK TO GOD, AND HAD SOME KIND OF BLAME TOWARDS HIM FOR NOT MAKING MY LIFE GO THE WAY I WANTED IT TO GO. HOWEVER, GOD STILL SPOKE TO ME THROUGH VARIOUS PEOPLE AROUND ME, INCLUDING THE YOUTH PASTOR, MY FAMILY, AND FRIENDS WHO CONSTANTLY PRAYED FOR ME AND ASKED FOR MY PRAYER REQUESTS, REMINDING ME TO CONNECT TO HIM. WHEN I WAS PLANNING TO GO TO THIS RETREAT, I DID NOT EXPECT MUCH AND SIMPLY THOUGHT OF IT AS A TIME



OF RELAXATION. HOWEVER, GOD REALLY DID HAVE SOMETHING BIGGER PLANNED FOR ME.

ON THE VERY FIRST DAY, HE SPOKE TO ME, TELLING ME THAT HE STILL LOVES ME WITH ALL HIS HEART DESPITE THE ATTITUDE I HAD AGAINST HIM. I HAD A COLD HEART AGAINST HIM FOR SUCH A LONG TIME, BUT HE STILL CAME FOR ME, SHOWING SO MUCH LOVE AND CARE. THROUGHOUT THE RETREAT, I WAS ABLE TO OPEN UP ABOUT THE BURDEN I HAD WITH OTHERS AND FEEL SOMETHING FILLING UP IN MY HEART EVERY SERMON. DURING PASTOR JED'S SERMON ABOUT BEING HONEST WITH MYSELF AND GOD, I COULD SPEAK TO GOD ABOUT THE FEAR AND EMOTIONAL STRESS I HAD, AND AS A RESPONSE, HE GAVE ME A RELIEF TO LET EVERYTHING GO AND FOCUS ON HIM; IT FELT LIKE I WAS UNCHAINED FROM MY STRUGGLES. HE THEN GIFTED ME WITH THE ABILITY TO SPEAK ABOUT HIM. AS I SHARED MY TESTIMONY OF FEAR AND STRUGGLES I WAS GOING THROUGH WITH MY SMALL GROUP AND OTHERS IN MY GRADE, I COULD WITNESS GOD SHOWING HIS PLANS AND WAY TO NUMEROUS PEOPLE. HE ALSO GAVE ME THE STRENGTH AND GRACE TO PRAY FOR OTHERS.

FOR ME, IT WAS ALWAYS HARD PRAYING OUT LOUD FOR OTHERS, BUT DURING PRAYERS, I WAS GIFTED WITH THE POWER AND WISDOM TO PRAY FOR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O WERE ALSO STRUGGLING IN THEIR LIVES. BY THE END OF THE RETREAT, GOD TOLD ME TO RELY ON HIM AND THAT I SHOULD SERVE AT CHURCH MORE ACTIVELY. BEFORE, I ALWAYS HAD AN EXCUSE OF NOT HAVING ENOUGH TIME WHEN THERE WERE CHURCH EVENTS ON SATURDAYS OR WHEN OTHER PEOPLE CONVINCED ME TO JOIN MINISTRIES. HOWEVER, THIS TIME, I WAS FILLED WITH THE HEART AND EAGERNESS TO SERVE THAT I WANTED TO JOIN A MINISTRY WITH JOY. NOW THAT I LOOK BACK AT THE CHALLENGES OF FEAR I HAD, I BELIEVE GOD WAS TRYING TO USE THEM TO STRENGTHEN MY MENTALITY AND FAITH TO PREPARE ME FOR MORE STRUGGLES THAT I MIGHT FACE IN MY SPIRITUAL JOURNEY. THIS RETREAT WAS TRULY A BLESSING IN WHICH I CAME TO REALIZE THAT GOD PLANNED EVERYTHING FOR A REASON, EVEN THE STRUGGLES, TO BUILD ME AND MY FAITH UP.

시작은 하나님의 표징을 그저 바라보는 것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심했을 뿐인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영광과 긴장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호세 평원의 실론 목장에서 이정석 목사님, 이소영 부목자님 인도 아래 목장 식구들과 즐겁게 목장 생활을 하고 있는 강현식입니다.

저는 근 20년 동안을 무늬만 신자인 채로 신앙 생활을 해 왔습니다. 믿음이 돈독한 아내와 결혼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저는 설교 시간에 쫓겨서도 아내를 사랑한다면 제가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의 절반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주인은 저 자신이라는 가치에 배반하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신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미안함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례를 받지 않았고 주기도문을 말하지 않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긴 세월동안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 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을 때, 어둡고 추운 간병실에서 '아내를 살려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노라'는 저의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합리적 사고의 잣대로만 대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입다물고 있었던 저에게 찬송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은 제 아내를 통해 완악한 저의 마음에 균열을 내시는 일을 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

고 미국에 와서는, 제가 몸 담은 실론 목장의 목자님과 부목자님께서 자신들을 내려 놓고 희생하는 헌신적 생활에도 그 모든 것이 기쁘다는 모습에 제 마음의 균열은 더욱 커져 갔으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은 진리가 저기 있으니 그것을 믿기로 하는 결단이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표징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라는 목사님의 추상같은 설교 말씀에 저의 완악한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참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조연자로 출연한 제 아내, 목자님, 부목자님, 목장 식구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자신이 삶의 주인'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마음은 고민, 걱정, 불안함 등을 안고 살아가며 그 가치관을 내려 놓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 그 이면에는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면서도 결국은 죽어야 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허무하고도 아이러니한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창조주를 부인하는 데서 생긴 죄라는 것을, 그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그 죄를 제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여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오직 제가 진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써 씻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고백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가고자 결심한 신앙의 길은, '제 생명과 제 모든 것을 거는 모험이자 도박이며 신앙을 잃게 되면 자아라는 전체가 무(無)로 돌아갈 것이나 신앙을 얻게 되면 자아는 물론 영원과 삶의 실재를 차지할 것' 이라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반드시 이 모험에서 영원과 삶의 실재를 차지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길을, 사랑하는 제 아내, 목사님, 부목자님, 목장 식구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와 인도로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행복하도록 비는 기도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든 은혜가 아니면 살아 갈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을 되새기며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고후 12:9)

글 | 강헌식 (실론 목장)

아이가 울때 나도 같이 울고 싶었다

인형을 잃고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 온몸으로 울고 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1살 때의 아들입니다. 평소 잘 울지 않는 아기였기에 그날을 난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다른 아이에게서 빼앗아서라도 울음을 멈추게 하게 싶었던 제 철부지 같은 생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은 아이가 울때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렀던 초보 엄마였던 저와 달랐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남편은 우는 아이를 껏 안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으며 심지어 웃고 있습니다.

열세살이 된 지금 아들은 사춘기의 한가운데서 오늘도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행하는 옷이든 스케이트 보드가든 갖고 싶은데 빨리 자기의 손에 안 들어와서 조금만 마음에, 또래의 친구들을 많이 신경쓸 나이여서 친구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며하고 싶지 않은 운동과 과외 활동을 엄마 아빠가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서 속상한마음으로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대꾸가 늘고 부모님 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면서 점점 아이가 멀어져 가는 아들을 보며 저는 요즘 종종 울고 싶기도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엄마를 둔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맛있는 음식도 못 먹는건 아닌지...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엄마의 시간과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닐지라는 불안은 늘 있었습니다. 유난히 섬세하고 감성적인 아이라서 사춘기를 정통으로 제대로 맞이한 것 같아서 남편과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사춘기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라는 고비가 지나가면 아들에게 다른 문제는 없을까? 대학 입시, 취업, 인간 관계, 결혼 등등 살면서 고민하고 울고 싶은 날은 계속 생길 테고 어쩌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어지고 아들의 다음 세대까지 반복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아이가 5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등부에도 잘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을 보고 더 없이 감사했습니다. 가정 사역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감동 캠프 (YOUTH CONNECT) 에도 참가하여 엄마와 같이 웃고 울었던 좋은 추억을 나누기도 했고 그 감동으로 다음 해에는 가정 사역부에



봉사자로 참가하면서 청소년 감동 캠프에서 봉사할수 있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같이 중등부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6학년 때 아들이 중등부 겨울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 입교를 받는 축복된 마음도 주셨습니다. 또한 가정 예배지와 프로그램 영어 번역 봉사에 아들이 감수를 하게 참여시켰는데 아들은 귀찮은 듯 하면서도 잘 도와주었고 그렇게 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 감정의 기복처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업 다운(Up & Down)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리콘 벨리에서 살면서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저는 똑똑한 인재를 많이 보고 일하는지라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램도 있지만 그쪽으로 관심이 없는 아들을 보면서 실망도 했습니다. 사실 부모가 그쪽으로도 재능이 없는데 공 심은 데서 팔이 나올리가 없는데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생의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엄마는 조바심으로 그리고 꽃길만 걷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의 울 권리도 빼앗으려고 하는건 아닌지.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A를 받아오면 좋아하고 실패하고 울고 있는 아이한테는 어떻게 사랑해 주어야 할지 모르는 엄마는 아니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갖고 싶다고 인형을 빼앗아 주어서 울음을 멈추게 하고 싶었던 알뜰하고 근시안적인 엄마의 바램보다 더 큰 계획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더 강하게 성장하도록 우는 아들을 그냥 울게 놓아 두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팔로 고통 안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20년 전, 저는 실리콘 벨리의 홍보 회사에 취직이 되어 취업 비자를 받고 큰 이민 가방 두개 들고 미국에 왔다고 좋아했었습니다. 기쁨은 잠시이고 정착이 힘들고 원하는 데로 빨리 되지 않아 조급한 마음에 얼마나 많은날을 울었는지, 바닥에 떨어져 더이

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좌절할때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고통 안아주시며 그의 위대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는 울고 있고 그런 아이를 보며 엄마도 같이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고통 안고 계십니다.

후기: 울고 있는 아들의 사진은 한장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울 때는 사진을 찍을 기분도 아니고 정신도 없고 해서... 결국 인형의 주인인 친구 아이의 아빠가 이 사진을 찍어주었고 그 사진을 최근에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울고 있는 사랑스런 아들의 사진을 찍어 주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통통거리는 지금의 사춘기 아들 사진도 많이 많이 남겨 두어야 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보면 분명히 내 입가에서 미소가 나올것입니다.

글 | 김수연 (모로코 목장, 가정사역 섬김팀)



비전 청년부의 귀여운 양떼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 청년부에서 목자를 섬기고 있는 윤주영 자매입니다. 글을 잘 적진 못하지만 우선 청년부 목장 소개는 처음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청년부에 대해 전해드릴까 해요. 현재 청년부는 대략 90명 정도로 학생 또는 직장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늘 찢알맹이 같은 말씀 전해주시는 친근한 이산돌 목사님과 함께 분기별로 성경공부도 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홀리파이어 예배를 드리며 유치부, 아동부, 찬양팀,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조용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을 갖지만 매월 마지막 주에는 자유편막장으로 다른 목장과 함께 식사도 하고 놀이도 하고 즐거운 친목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주고 묶어주신 소중한 인연, 저희 목장, 양들 한 마리 한 마리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목장은 저를 제외하고 90년생부터 96년생까지 개성 넘치는 인물들로 현재 총 11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어색한 첫 만남은 2019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목장이 조용한 목장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편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끊임없이 오디오를 채우는 양들 덕에 조용하고 깊은 나눔이 때론 어렵기도 하지만 부족한 목자를 오히려 생각해주고 도와주려는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귀한 양들입니다. 아직 두달 정도 밖에 안되서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할 말만 해서 소통의 부재가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항상 훈훈한 정이 흐르는 유쾌한 목장입니다. 저희 목장은 건전하게 주로 보드게임을 즐겨합니다. 때로는 불신이 시험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또 서로를 알아간다고 믿습니다.

양떼 목장 멤버로는 언제나 하이텐션 사랑스러운 등산러버이자 카페봉사하는 비타민 전도사 은주, 목장을 위해서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눈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천재 길순이, 예쁜 외모에 볼링과 모든 스포츠를 섭렵한 걸크러쉬 달기, 청순한 외모에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진 수민이, 저 멀리서 예배 드리러 오는 기특한 분위기 깡패 얼굴도 마음도 예쁜 은근 애교쟁이 혜수, 우리 목장 새내기 '상남자는 나다' 맛있는 것 아니면 안 먹는 태영이, 성실함과 지성의 아이콘이자 인사는 주먹으로 찡하는 은근 귀요미 주성이, '이 중에 하나는 터지겠지' 하는데 정말 몇십 개 중 하나 터지는 개그맨, 목공과 볼링의 능력자이자 허세남 태훈이, 지성을 겸비한 의리녀이자 매력 부자인 카페 봉사하는 통큰 언니 세은이, 귀여운 막내이자 미디어팀에 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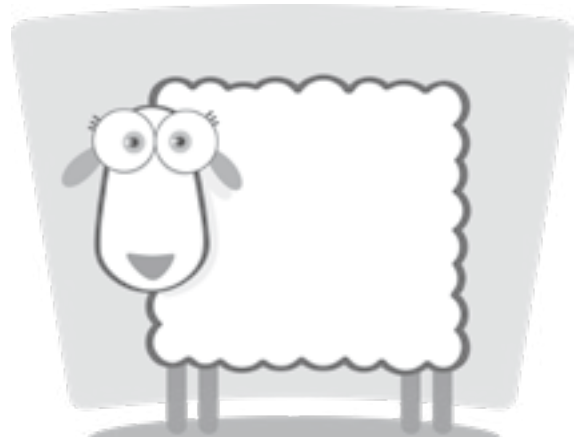
양팀까지 섬기는 멀티플레이어 남친룩의 정석 주열이, 그리고 귀여운 동물을 사랑하는 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목장의 올해 표어는 “하나님을 보자”로 저희들이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희 목장도 청년부와 함께 성경통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이들이 있어서 꾸준히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함께 남은 한해 끝까지 말씀 읽기에 힘써 하나님도 더 깊이 알아가고 저희도 서로를 더 알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청년부에 매주 새 가족이 찾아오는 풍요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3주 동안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면 각각 목장으로 등반하게 됩니다. 새가족환영팀이 맡은 역할을 잘 해주어서 현재 목자 부족현상을 겪고 있지만 그만큼 베이지역에 주님의 자녀들이 양떼처럼 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목장뿐 아니라 비전 청년부가 각 목장 안에서 하나님을 나누

고 자라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러먹어 주시고 많이 예뻐해주세요.

글 | 윤주영 (비전청년부, 양떼목장)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군대를 다녀와 대학 4학년 때 진로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전임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학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대학을 졸업할 즈음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미 대사관 인터뷰 없이 학생 비자를 신청했는데 1년 비자를 받았고 원하던 신학 대학원 진학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창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대학교 등록금 마련하는 것도 늘 어려웠던 저희 집안 형편에 유학을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교회 식구들, 선교 단체 선후배, 그리고 몇 친척 분들을 만나 기도 편지를 드리고 기도와 재정 후원을 부탁해서 약 450여만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것으로 비행기 왕복행 티켓을 끊고 환전을 하고 나니 손에 \$1300만 남았습니다. IMF사태가 터진 직후라 환율이 좋지 않았고 미국에 유학 갔던 사람들도 귀국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부모님에게서 받는 도움 하나도 없이 유학길에 오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유학원을 통해 가기로 했던 ESL 어학원의 첫 학기 등록금이 \$2800정도 였습니



다. 첫 학기 등록금의 반도 안되는 금액만 손에 쥐고 도와줄 지인, 친척 하나 없고 어디 머물 장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출국 이틀 전 아는 학교 선배를 통해 제가 도착할 시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의 연락처를 받아서 그 분께 공항 라이드 부탁을 드렸고 그 교회 교인의 픽업을 받아서 목사님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었고,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 “제가 수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 보았지만 형제님처럼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 유학 온 사람은 생전 처음 봅니다.” 였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큰 암수술을 받으시고 몸을 회복하는 중이셨고 가난한 유학생 교회였기 때문에 사모님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중에도 저를 거두어 주시고 아드님이 방학이 되어서 돌아오기까지 약 2달 동안은 집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미국 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목사님 소개로 중국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풀타임으로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또 그러는 사이에 신학교에 진학할 여러 준비들을 하며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해 4월에 미국에 와서 8월에 미국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가난했던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경험과 함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위기와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도울 천사들을 붙여 주시고 로뎀 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를 먹이시듯 제 필요들을 채우시고 돌보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해 전 전도 폭발 훈련을 다녀 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던 이유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훈련을 통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얻으며 더욱 더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는 부분적으로나마 창 12장 3절 말씀이 이제 제 자녀들을 통해서 이뤄져 나감을 보게 하셨습니다.

작년 중고등부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첫째 아들 연우가 자기 학교에 없었던 크리스찬 클럽을 새로 시작하며 모임을 통해 믿는 학생들과의 교제 뿐 아니라 기도하며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예수님께 이끄려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의 삶 뿐 아니라 이제 저희 가정을 통해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삶의 중요한 기점마다 말씀으로 임재 하셔서 제 가는 길에 등과 빛이 되어 주신 진리의 주님께서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길, 깊이

지 않는 주님의 성실과 인자가 저희 가정과 제 아이들의 삶에도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늘 성도님의 친구가 되며, 복음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말씀의 간증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3)

글 | 조종연 부목사 (신앙위원회, 전도위원회)





계간지 '임마누엘'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항목에 교우를 추천하거나 원고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해당 항목에 표를 해주세요. 추천된 목장이나 가정예배는 편집부의 취재 및 인터뷰 혹은 원고 기고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목장 이야기 - 목장 예배를 소개합니다. ()
2. 가정예배 -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가정예배를 소개합니다. ()
3. 에녹과의 만남 - 노부모님의 믿음의 인생 여정을 편집부에서 인터뷰합니다. ()
4. 친구 소개장 - 임마누엘의 숨은 일꾼을 소개합니다. ()
5. 임마누엘 레시피 - 가족 건강식 또는 목장의 대표 요리를 함께 나눕니다. ()
6. 개인 간증문 ()
7. 시, 수필 ()
8. 자유 기고 ()

추천인/참여를 원하는 분의 성함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추천하시는 목장 및 교우 _____

'임마누엘'지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야기로 엮어집니다.

임마누엘 40주년 기념

추억의 사진전 사진 수집



임마누엘이 40주년을 맞는 2020년을 맞아 '추억의 사진전'을 열고자 합니다.

1979년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의 역사와 성도님들의 인생과 추억이 담긴 사진과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살아 숨쉬는 세월을 담은 한 장의 사진들이 모여서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만들어 집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집 내용: 1979년 ~2020년 5월까지 사진과

설명 10줄

제출 기한: 2020년 5월 31일

제출처: kepceditorial@googlegroups.com
또는 사진 수집함

임마누엘의 행복한 사람들





임마누엘장로교회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epcsj.org

(408) 263 5100

4435 Fort 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손원배

[편집인] 황의철

[기획] 장은영

[편집 및 번역] 김연희 김건순 동원봉 이정열 차연주 한연선 형세련

[사진] 김홍대 맹은희 박종현 윤영숙

[디자인] 강미영 국세은 이지은 한혁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